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2, 547-569

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및 단기 효과 검증*

송 원 영† 오 경 자 신 의 진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후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5회기로서 인지적 왜곡의 수정, 공감능력의 상승, 자존감 고양, 대인관계 개선, 정서적 안정성의 확보, 재발방지교육을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73명이었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는 Burt(1980)의 강간통념척도, Fernandez(1999)의 피해자공감척도, Rosenberg (1965)의 자존감척도, Cohen 등(1983)의 대인관계지지평가척도, UCLA외로움척도, Beck 우울척도, 상태-특성 불안척도, 상태-특성 분노척도를 사용하였다. 치료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였으며 범행의 특징에 따른 효과의 차이 역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집단은 인지적 왜곡과 대인관계,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에서 치료 프로그램 전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나 피해자 공감과 자존감에서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발견된 결과를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와 처우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성범죄, 보호관찰, 수강명령, 인지행동치료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Tel : 041-730-5414 / Fax : 041-736-5765 / E-mail : 1058@paran.com

성폭력은 범죄 중에서도 살인과 더불어 가장 심한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도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에서의 강간 사건은 인구 10만 명당 21.4명으로(대검찰청, 2005), 1993년의 16명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6년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간을 저지른 소년범 752명 중 489(65%)는 초범이었던 반면 35%가 재범이고, 그 중 반 이상이 2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효과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심리학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의 서구에서는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성폭력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에 근거하여 심리치료적 접근을 시작하여(Marshall & Laws, 2003) 현재는 많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Lowden, Hetz, Harrison, Patrick, English, & Pasini-Hill, 2003; Ward, Polaschek, & Beech 2006; Marshall, Fernandez, Marshall, & Serran, 2006)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경험적으로 입증된 치료로 제시되는 것은 인지행동치료로써, 미국성학대자 치료협회(ATSA,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에서는 치료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될 뿐 아니라(효과크기=.11), 그 효과를 환산하면 '1달러당 4.13달러의 이득'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Aos, Phipps, Brnoski & Lieb, 200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 특히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아직 초기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1989년 법무부의 수강명령 부과제도가 시작되었고, 이후 성폭력 치료수강명령도 시작되었지만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명령 자체도 적게 내려졌고, 집행에서의 예산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적었으며 깊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전영실, 2001). 그런데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와 국민은 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전후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를 시작하여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이영준, 송원영, 엄소용, 2005)하였고, 법무부에서도 여성민우회(2003)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 교육매뉴얼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외국의 연구와 사례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것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에 비해, 매뉴얼이나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효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범행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는 등의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현재의 수강명령은 40~50시간을 부과하는 한편, 일선 기관에서는 편의에 따라 일주일 내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마땅히 의뢰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범행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전영실, 2001)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물론 표준 프로그램조차 개발·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치료적 접근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및 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기존 이론을 개관하여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한 후 그 실증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으로 가장 효과적이라 알려진 것은 인지행동치료이며(Aos 등, 2001), 이는 인지적 왜곡을 주된 치료의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에서 활

용되는 인지행동치료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에서의 방법 뿐 아니라 공감 및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 통합적인 치료(integrated approach)방식을 택하고 있으며(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Marshall 등, 2006) 공감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정서 및 사회인지적 내용들을 추가하여 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에게서 주로 활용되는 모듈인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 대인관계, 자존감, 재발방지의 항목에 대한 기존 이론 및 개입에 대한 개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폭력범의 인지적 왜곡

성폭력범들은 범행 이전부터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범행의 진행과 사후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게 되는데 이는 다음 범행에 이 인지를 또다시 사용하기 때문이다. 범행 전에 가지게 되는 인지적 오류의 대표적인 것은 강간통념 및 잘못된 지식의 습득이다(Malamuth, 1981). 강간통념이란 강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으로서 성폭력 발생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 및 허위조작으로 여기는 것, 여성의 행동을 성적인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이석재, 최상진, 2001).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강간통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강간에 대한 묘사에 대해 성적인 흥분을 보인다(Malamuth, 1981). 강간통념은 폭력을 수용하는 사람에게서 보다 쉽게 내면화된다. Burt(1980)에 의하면 폭력의 수용은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것에 가장 큰 예측변인이고, Check와 Malamuth(1983)에 의하면 성행위 장면에 대한 영상에서 여성들은 즐거움을 느낄 때만 각성을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즐거움과 고통 둘 다를 느낄 때 더욱 각성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강간의 결과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강간을 지지하는 태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Hamilton & Yee, 1990), 성폭력에 대한 습득된 지식의 종류는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범들은 성폭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지적인 왜곡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각오류나 선택적 처리가 나타나는데, 지각 오류의 대표적인 예는 강간을 범한 사람들의 진술 중 피해 여성들이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으나 점차 마음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이다. 피해자들은 대개 처음에는 반항을 하지만 가해자들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가해자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더 큰 해를 입을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소진하게 된다. 강간범들은 대개 이런 상황을 반항에서 동의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착각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매우 서투르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많은 포르노그라피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Hudson 등(1993)은 실제 강간범과 아동 성폭력범들이 분노, 혐오, 공포를 종종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폭력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방어를 위해 이들은 상황에 대한 해석 역시 왜곡된 방향으로 시도하게 된다. 사후의 인지적 왜곡은 주로 부인, 축소, 합리화 등인데,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행동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를 외적이거나 자신과 덜 관련된 것으로 미루어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이 지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개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변화시켜야 하며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Murphy (1990)의 인지 재구성 접근(cognitive restructuring approach)이 있다. 인지 재구성 접근에서는 참여자에게 우선 인지적 구성요소들이 그들의 일탈적 행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설명해주고, 둘째로는 교정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셋째로는 특정한 왜곡을 알아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왜곡된 것들에 도전을 한다. 또한 Marshall 등(1999)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씩 범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료들이 그 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을 지적하는 '뜨거운 의자(hot seat)'라는 기법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인지를 끄집어내고 자신들의 말로 수정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공감(empathy)이란 '감정 경험을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정서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서의 대리적인 경험은 공통된 요소이다. Davis (1983)에 의하면 공감에는 인지적 요소로 조망수용 능력과 상상이 있고, 정서적 요소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있다고 설명한다. Marshall 등(1995)도 공감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서적 인식, 조망 수용, 동정적인 감정적 반응의 경험, 위로나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의 시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공감은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기초가 된다. 성폭력을 비롯하여 공격적인 범죄자들은 공감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전반적인 공감능력과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해자-특정적인 공감(victim-specific empathy)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udson 등(1993)은 성폭력 가해자와 폭력 가해자들은 감정 인식 기술이 부족하고 특히 놀람, 공포, 분노, 혐오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에 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Scully(1988)은 47명의 강간범에게 공격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물었는데, 58%가 피해자의 감정을 머리로는 알았고, 대부분 약간은 감정을 이해했지만 공감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다. Fernandez 등(1999)은 세 가지 조건에서의 공감을 비교해보았다. 첫 번째 상황은 아이가 사고를 당한 장면이고, 두 번째 상황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세 번째 상황은 가해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아동 성추행자들은 강간범과 일반인에 비해 공감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고 특히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도 반복되었는데,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은 대조집단에 비해 자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았다(송원영 등, 2004). 공감능력의 증진을 위한 개입으로는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의 역할을 맡아봄으로써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을 체험해보도록 하거나 과거에 피해를 당한 가해자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Hildebran & Pithers, 1989, Marshall(1999)에서 재인용),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장을 보낸 방법 등이 사용된다.

자존감

자존감이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적응적인 삶의 기본 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Campbell과 Lavallee(1993)는 자아 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 설명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개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 낮은 자존감이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동의한다.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보다 약하고 무력한 존재에게 향해지게 되고, 여자나 아이들은 쉽게 그 대상이 된다.

성폭력 가해자들에 있어서도 낮은 자존감은 매우 공통적인 현상이다. Marshall(1999)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낮은 자존감이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감소된 대인관계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며, 관계의 진공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sex)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강제로 된 성관계일지라도 그것을 원하게 되어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ortoni 등(1996)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은 친밀감의 부재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에게는 대처행동의 하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매우 짧은 단기간의 위안을 줄 뿐, 곧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이들은 재범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다.

자존감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보이는 인지적 왜곡 사이과도 관계가 있다.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은 야전인수격인 편향(self-serving bias)으로서 사실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형태이다. 이런 인지 왜곡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해석 등에서 일어나며, 자기 중심적인 해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이다(Marshall, 1971). 초기에는 성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적인 만족이나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는 애착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불안정하게 애착된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거절이나 무시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감을 쉽게 느끼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친밀감을 성행위와 동일시하고, 그들은 성행위가 자신의 풀리지 않는 욕구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Marshall 등(1999)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가져올 뿐이어서 행동은 반복되고 이들은 만성적인 외로움을 계속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친밀감과 성을 동일시한다는 가설과, 성폭력 가해자들의 애착이 불안정하다는 가설이 포함되어 있다. Awad, Saunders와 Levene(1984)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1/3이 부모를 거부적이라고 표현했고, 1/3이 학대적이라고 보고했으며, 아버지 중 반은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위의 내

용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친밀감 또는 대인관계의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첫 번째로는 친밀감의 근원을 찾는다. 집단에서는 대개 사회적 기능을 다루는 회기는 뒷부분이므로 이미 어느 정도 범행이나 기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한 상태이며, 부모나 이전의 애정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나눈다. 그리고 관계맺기의 역기능적인 스타일, 특히 상대가 떠나가게 된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치료회기에서 보다 많이 털어놓을수록 보다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분명히 지적할 것은 성적으로 학대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에 대한 불안이나 성에 관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는데, 많은 경우 성에 관한 역기능적인 신념들이 있어서(예를 들면, 남성 상위의 성기 삽입만이 적절한 성행위이다) 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질투' 역시 주된 문제가 되는데, 질투는 대개 자신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므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접근을 한다. 또한 의심어린 질투는 자기 자신이 파트너에게 충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한다(Marshall 등, 1999).

재범 방지

성범죄의 재범율에 대한 통계치는 연구들에 따라 3%에서 70%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의 대상, 분류, 재범의 정의 및 추적기간이 다른 이유이므로 재범율을 살필 때에는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전체 성범죄자 중 재범을 일으키는 사람의 비율 뿐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반복적인 재범을 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통계는 재범율 자체가 높기보다는 약 5~6%의 범죄자가 전체 범죄 중 50%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등 일부 재범자들이 반복적인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Farrington, 1983; Farrington, Ohlin, & Wilson, 1986; Wolfgang, Thornberry, & Figlio, 1987; 고선영 등(2004)에서 재인용)과, 그 재범자들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청소년기에 범죄를 시작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과 밀접한 연관점을 두고 있다.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재범을 막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 모델로 재발방지 모델이 있다. 이는 처음에 중독과 같은 임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시작된 모델을 성폭력 등의 범죄에 적용한 모델로서 중독과 유사한 개념적 틀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함을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Marques, Day, Nelson과 Miner (1989)는 재발방지 모델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용하면서 잠재적인 재발과정에서 맞게 될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델을 발전시켰다. 재발방지모델에서는 이 모델을 이해하고 언뜻 보기에 중요해보이지 않는 사소한 의사결정의 순간들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안정성 및 대처기술의 습득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소년 성폭력범의 특성

청소년 성폭력범은 성인들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Calder(2001)에 의하면 청소년 성폭력범들은 성적인 취향이나 비정상적인 각성이 성인만큼 크지 않고, 수법이 덜 발달되어 있으며 상황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크다. 또한 성에 대한 지식이 적고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내적인 통제보다는 외적인 통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교육이나 상담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청소년 성폭력범의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Bera, 1985), 성적인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순진한 실험 유형과, 사회화에서의 미숙함으로 인해 다양한 범행을 보이는 유형,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성적 공격형,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박적 충동형, 가족의 역기능이 심한 혼란형,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는 집단형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청소년 성폭력범이 단일한 속성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이러한 집단구성의 다양성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과여부, 가족구성여부, 집단범행 여부 등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

앞서 개관한 내용 및 기존에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 요소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성에 대한 학습사를 살펴보고, 강간통념 및 포르노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잘못된 학습내용을 수정하며 가해 중의 선택적 지각과 같은 내용들 고칠 수 있도록 인지적 재구조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Marshall(1999)이 뜨거운 의자(hot seat)라는 기법에서 설명하였듯,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부인이나 축소에 대해 심리적 기능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방어를 벗어나 책임을 수용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공감능력의 증진이다. 공감능력은 짧은 시간에 증진시키기 쉽지 않은 항목으로서,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에게 벌어진 결과에 대한 지식을 넓힘으로써 피해자가 느낄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과 관련된 비디오 등 관련 자료와 교육적 접근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는 어린 시절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범죄적 하위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존감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는 행동적인 기법과 이것을 꿈(희망, 장기목표)과 연결시키는 것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수용 및 참여 경험과 같은 치료적 관계를 통해 자존감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였다. 네 번째 영역인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 영역은 성폭력이라는 행위가 성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결핍 및 친밀감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Marshall(1971)의 연구 이후로 서구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화법 실습 및 서로에 대한 피드백 등 프로그램 내에서 서로를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표 1. 회기별 구성 및 각 회기와 관련된 주요 치료적 요인

회 기	제 목	주관련 요인
1회기	소개, 서약서 작성, 인생그래프	대인관계, 자존감
2회기	나는 누구인가?, 나의 꿈	대인관계, 자존감
3회기	사랑과 폭력	인지적 왜곡
4회기	인지모델의 소개 - 생각하기 나름	인지적 왜곡
5회기	성에 대한 기존 학습 및 인지내용 알아보기	인지적 왜곡
6회기	성폭력에 대한 생각 - 강간통념 등 수정하기	인지적 왜곡
7회기	피해자 공감	피해자 공감
8회기	성폭력의 모델 설명, 위험요소 찾아보기	재발방지
9회기	성폭력 모델에 따른 자기 적용하기	재발방지
10회기	사소한 생각의 중요성, 효능감 점검	재발방지
11회기	뜨거운 의자(1)	인지적 왜곡
12회기	뜨거운 의자(2)	인지적 왜곡
13회기	대화법 및 실습, 대인관계 패턴 점검	대인관계
14회기	분노 조절훈련	재발방지
15회기	결심다지기, 유사상황에서의 재발방지 연습	재발방지

기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발위험요인 다루기를 포함하였다. 정서적인 불안정, 즉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문제와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성에 대한 몰입 또는 비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위험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지적 대처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포함시켰다.

프로그램의 진행형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회기는 매주 2시간씩 15주간 진행하여 총 30시간이었고 경우에 따라 중간에 휴식이 있었다. 각 집단은 참여자를 총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치료자는 주치료자와 보조치료자를 각 1명으로 하며 실습생이나 참관자는 1명 이내로 제한하여 치료자가 3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설계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5회기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비교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를 실시하였다. 각 범행 특성에 따른 효과 비교는 두 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의 형태로 분석되었으나 집단의 구분은 2년간의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집단 구성에 대한 무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사실에 따라 전과여부

(있음, 없음), 가족구조(양친, 한부모), 본범시 폭행여부(있음, 없음), 공범여부(단독범, 경합범), 음주여부(음주, 비음주), 피해자와의 관계(면식, 비면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성폭력의 죄명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고,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명령받은 16~19세의 남자 청소년 78명이었다. 이들 모두는 15회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고, 프로그램의 전후에 평가를 받았다. 같은 답의 반복 및 문항 누락 등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5명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73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가 도구

범죄 사실 및 관련자료

청소년들의 판결문을 통해 치료 이전에 본범 및 전과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다. 판결문에는 청소년들의 죄명 및 판결내용, 피해자 관련 정보(나이 등) 및 정황에 대한 내용 들이 수록되어 있다. 판결문 중 관련 변인을 수량화하여 코딩하였다. 죄명의 경우 성폭력(청소년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등 해당)과 비성폭력(폭행, 절도, 사기 등)으로 구분하였고, 전과여부는 전과의 횟수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에 언급한대로 전과여부, 가족구조, 폭행여부, 공범여부, 음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강간통념 척도

강간통념척도는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강간에 대한 통념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아주 반대'로부터 '아주 찬성'까지 likert형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20~180점이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총점과 각 요인들에 대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로 높은 편이었으며, 각 소척도별 신뢰도는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에서 .82,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오해에서 .70,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에서 .77,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에서 .67로 양호하게 검증되었다.

아동 성추행범 공감 척도(CMEM,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Fernandez 등(1999)이 개발한 피해자 공감 척도이다. 본래는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part A, 30문항)과 자신의 느낌(part B, 20문항)을 묻는 총 150문항의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자를 떠올리는 마지막 상황의 5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 상황 중 part A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로, part B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로 높게 검증되었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

(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개념의 특정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10개의 문항으로서 총점범위는 0~30점이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훈진, 원호택, 199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로 측정되었다.

대인관계 지지평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ohen 등(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사용하였다. ISEL은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와 이장호(1986)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정 번안한 것을 윤소연(1993)이 재번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은 평가적 지지, 자존감 지지, 소속감 지지, 실체적 지지로서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 척도의 α계수는 .91이며(Lakely & Cassady, 1990), 윤소연이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으로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검증되었다.

UCLA 외로움 척도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usse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을 김옥수(1997)가 한국형으로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친밀감 부족, 사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는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4점까지의 4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0~80점이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9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로 검증되었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70)가 제작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소척도의 점수 범위는 20~100점까지이다. 김정택(197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상태불안의 경우 .87로, 특성불안의 경우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89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 척도

상태-특성 분노척도는 Spieberger(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척도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분노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분노(10문항)와 특성분노(10문항) 및 분노 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연구(서수균, 권석만, 2002)에서 내적합치도는 상태분노 .89, 특성분노 .82,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통제 .79로 양호하게 검증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내용은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었으므로 전체 척도 중 분노에 대한 통제력 요인만을 분석하였고, 점수 범위는 8~32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로 나타났다.

평가 절차

사전 평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평가가 이루어졌다. 사전평가는 면담과 자기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간은 참여자들의 수강명령 이수시간으로 인정되어졌다. 사전 평가가 이루어진 1주일 후로부터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사후 평가

마지막 회기인 15회기에는 사후평가가 진행되었다. 사후평가는 자기보고식 검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분석 방법

치료 효과의 분석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를 사전-사후에 비교하였다. 치료의 효과는 개입요소간 측정치의 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각 척도를 치료의 구성요소인 인지적 왜곡, 공감,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성의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각 치료집단을 진행한 치료자의 변인이 프로그램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도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치료자 변인의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서(성범죄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F(3,69)= 1.868$, *NS*, 부적응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F(3,69)=1.002$, *NS*), 각 치료집단의 자료를 합쳐(pooling)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요인으로는 사건적 요인으로 전과여부와 가족구조를, 사건 특성으로 사건당시 폭행여부, 공범유무, 음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치료 효과에 사용하였던 5가지 영역의 8가지 검사를 활용하였다. 여러 번의 검증으로 인한 1종 오류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료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각 검사의 차이점수(사후검사-사전검사)를 효과변인으로 상정하고, 효과변인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사각회전(oblimin)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공통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축 분해와 같은 요인분석을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료의 수를 축소시키는 목적이었으므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변인의 종류를 나누었다(조은성, 2007). 효과변인들은 성범죄요인(인지적 왜곡, 피해자공감)과 부적응요인(자존감, 사회적 지지, 우울, 외로움, 불

안, 분노통제)의 두 범주로 나뉘었다. 각 범주를 활용하여 사건관련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같은 요인에 포함된 차이점수들을 동시에 종속변인으로 포함하는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통해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주효과가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독립변인과 개별 검사간의 관계를 변량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 효과의 전반적 분석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범주 중 인지적 왜곡($F(4,69)=4.701$, $p<.01$), 대인관계($F(2,71)=7.427$, $p<.01$), 정서적 안정성($F(3,70)=4.929$, $p<.01$)의 세 가지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측정되었다(표 2). 그러나 공감($F(2,71)=1.515$, *NS*)와 자존감($F(1,72)=1.231$, *NS*)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지적 왜곡에서는 강간통념의 네 가지 하위변

표 2. 인지행동치료의 사전-사후 효과 검증

효과범주 측정변인(집단내)	사전평균 (표준편차)	사후평균 (표준편차)	*Wilk's Lambda*	*df*	단변인 *F*
인지적 왜곡*					
왜곡 1	31.18(12.44)	26.11(12.83)		72	9.640**
왜곡 2	13.89(6.91)	11.92(6.87)	4.70**	72	5.606*
왜곡 3	18.56(8.35)	14.68(7.63)		72	18.405***
왜곡 4	10.48(4.29)	8.73(4.48)		72	8.180**
공감**					
피해자공감 A	164.62(59.77)	164.68(61.50)	1.56	72	.000*(NS)*
피해자공감 B	121.04(30.47)	115.49(29.49)		72	1.826*(NS)*
자존감	20.17(4.33)	20.66(4.77)	1.23	72	1.231*(NS)*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98.01(18.40)	104.01(20.40)	7.43**	72	13.466***
외로움	37.51(8.05)	35.37(9.44)		72	9.143**
정서적 안정성					
우울	9.18(7.30)	6.35(6.72)	.83**	72	19.479***
불안	50.97(12.35)	45.85(10.23)		72	10.758**
분노통제	17.88(4.59)	18.88(4.59)		72	4.106*

*왜곡 1: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오류, 왜곡 2: 피해자의 성경험 오해,
왜곡 3: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왜곡 4: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피해자공감 A: 피해자의 어려움에 대한 추측, 피해자공감
B: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

* $p < .05$, ** $p < .01$, *** $p < .001$

인인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오류, 피해자의 성경험 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모두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이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재범촉발요인에서는 우울, 불안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분노통제능력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치료 효과의 상세분석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요인분석

치료의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에서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전검사를 빼서 각 변인간의 점수차를 계산하였다. 여덟 개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것의 통계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료를 축소하여 각 척도들을 보다 주요한 성분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은 세 개였으나 (2.497, 1.229, 1.097), 세 번째 요인은 스크리 검사상 두 번째 요인과의 경사각(점수차)이 크지 않았고, 해당 소척도들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인과도 높은 부하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요인의 수를 2개로 고정하고 재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전체의 31.2%를, 요인 2는 15.4%를 설명하여 두 요인이 전체의 46.6%를 설명하였다. 요인간의 상관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에는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조절에 관련된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청소년 비행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적응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에는 인지적 왜곡과 피해자 공감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범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치료전후의 점수차에 대한 요인분석

구 분	요인 1 (부적응 요인)	요인 2 (성범죄 요인)
자존감	.716	.318
사회적지지	.716	
우울	-.656	
외로움	-.634	.314
불안	.-590	
분노통제	.507	
피해자 공감		.724
인지적 왜곡		-.645

범행의 특성과 치료효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주성분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반복적인 t검증이나 변량분석은 1종 오류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본 요인분석에서의 결과에 따른 2개의 범주에 대해 각각 집단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독립변인으로는 각 범죄특성에 따른 집단을 투입하였고, 각 특성마다 종속변인으로 성범죄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1회, 부적응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다시 1회 분석하여 한 범죄특성에 2번의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만을 실시하도록 하여 α 수준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다변량분석에서의 결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만 개별 변인에 대한 변량분석(univariate ANOVA)을 실시하였다.

사건 전 요인 : 전과 여부, 가족구조

범죄의 특성과 치료효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범죄의 특성 중 사건 전의 요인으로 전과 여부와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전과여부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전과가 없

는 사람이 46명, 전과가 있는 사람이 27명이었고, 성범죄 요인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F(2,69)=.692$, *NS*). 따라서 개별검사간의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부적응요인의 변화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약간의 경향성이 관찰되었다($F(6,65)=2.183$, $p=.056$).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검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니 불안에서만 강한 영향이 나타났다($F(1,71)=7.142$, $p<.01$). 구체적으로는 전과가 없는 사람의 경우 불안점수가 8점 가량 저하되었으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치료 후에도 불안점수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구조는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n=61$)와 한부모 가정인 경우($n=11$)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경우 성범죄 요인에 대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2,69)=.396$, *NS*), 부적응요인에도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6,65)=1.007$, *NS*).

사건 특성: 폭행 여부, 공범유무, 음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특성은 사건 당시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의 여부, 당시 음주를 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폭행여부는 사건당시 폭행이 있는 집단($n=26$)과 폭행이 없는 집단($n=46$)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성범죄 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고($F(2,69)=.649$, *NS*), 부적응요인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F(6,65)=.361$, *NS*).

공범 유무는 단독범($n=15$)와 경합범($n=58$)을 비교하였고, 이들은 성범죄 요인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F(2,69=.112$, *NS*), 부적응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단독범은 경합범보다 분노조절능력이 의미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F(1,65)=10.320$, $p<.01$). 그 밖에 단독범은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공범에 비해 높아지고 경합범은 외로움, 우울, 불안이 단독범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건당시에 음주를 했는지의 여부는 음주상태($n=54$)와 비음주상태($n=18$)를 비교하였고, 성범죄요인($F(2,69)=.047$, *NS*)과 부적응 요인($F(6,65)=1.813$, *NS*)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n=21$)였는지, 처음 만났거나 새로 알게된 사람(예, 인터넷 채팅을 통한 만남, $n=52$)으로 구분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성범죄요인과 부적응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모르던 사람인 경우 인지적 왜곡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 있는 경우 인지적 왜곡이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모르던 사람인 경우 공감능력이 상승했음에 비해 이전에 알던 사람인 있는 경우 오히려 공감능력이 저하되었음이 발견되었다($F(1,65=2.894$, $p<.10$). 따라서 이전에 알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 요인과 관련된 변화를 충분히 일으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단, 표준편차가 변화의 정도보다 훨씬 큰 것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부적응요인의 변인별 분석을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에서는 유사한 효

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존감에서는 모르던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자존감이 상승했으나, 알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치료 이후 자존감이 오히려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범죄 요인에서 피해자가 알던 사람인 경우 치료목적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인지행동치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요소로 알려진 인지적 왜곡, 피해자 공감, 자존감, 사회적 관계, 정서적 불안정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인지적 왜곡과 사회적 관계, 정서적 불안정성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피해자 공감과 자존감의 변화는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인지적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강간통념 척도는 성폭행피해의 책임 귀인 오류, 피해자의 성경험 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의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이후에 4가지의 소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보고되었다. 이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인지적인 오류가 감소하였고, 나아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회적 관계의 하위요소로 상정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는 증가하였고, 외로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성범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에 대한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왔다(McNeil, Stewart, & Kaufman, 2000; Kim, & Goto, 2000). 또한 성범죄 청소년의 경우 범죄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낙인이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수치감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다시 부적응하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므로 사회적 지지수준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중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드러났다(Kim, & Goto, 2000).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 중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로움의 경우 그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대처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므로(Cortoni, & Marshall, 2001) 이의 감소는 향후 성범죄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성에 대한 부적절한 탐닉 또는 중독적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도 필요할 것이다.

정서적 불안정성은 주로 성범죄에 대한 자기조절 모델(self-regulation model)에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특정한 단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Ward, 2006). 따라서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향후의 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공감은 프로그램 전후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길이에 대한 문제로서, 외국에서의 프

로그램이 최소한 1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행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이 개인별 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회기가 15회기로 제한되었고, 피해자 공감을 주 내용으로 할애한 시간이 1회기에 불과하여 충분한 개입이 시도되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공감과 관련한 개입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토론을 하는 것에 그쳤고, 일부 청소년들만 과제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상상해서 쓰고, 그에 대한 답장을 쓰는 등의 추가적인 개입 정도였으므로 적은 양의 투입으로 인한 적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저하가 성폭력범의 중요한 특징임을 고려할 때(Fernandez & Marshall, 2001),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길이를 충분하게 늘려서 공감능력에 대한 개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집단 구성의 이질성에 있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공감능력이 증가한 반면,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공감능력이 감소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믿고 정서를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감안할 때(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일 경우 주변 사람을 통해 그 생활사를 전해듣거나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스스로의 공감능력을 더욱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감능력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되, 가해자와 피해자가 본래 알고 있던 상황인 경우에는 보다 섬세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고무시켜야 할 것이다.

자존감 역시 프로그램 전후에 변화를 보이지 않은 변인이다. 본 프로그램에 사용한 척도의 저자인 Rogenberg는 자존감의 정의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평가'라 하였고, 사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범죄 이전부터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있어왔다고 보고되어진다(Wolf, 1984).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15회기보다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는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0회기의 프로그램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국내연구(정찬석, 1997)나 자아존중감은 장기간에 걸친 처치를 통해서만 변화를 보인다고 전제하고 54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 Reasoner(1992)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향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본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적게 할애한 피해자 공감 및 자존감에 대한 개입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범행특성 중 범죄 이전의 요인과 관련하여 초범과 전과범 사이에 불안수준의 저하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전 검사에서는 초범과 전과범의 불안수준이 동등한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사후검사에서는 초범의 점수만 의미있게 저하되고, 전과범인 경우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과범의 경우 불안이 잘 감소하지 않는 보다 만성적인 불안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특성불안의 경우 초범과 전과범 모두 치료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전과범에게서

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과의 횟수가 향후 재범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임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도 치료 이후에 재범을 한 사람들을 예측할 때 유일하게 예측치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의 불안 경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과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비행의 조기 발현은 범죄문화에 보다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사건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단독범의 경우 경합범에 비해 분노조절능력이 사전에는 더 낮았으나 사후에는 더 높아진 반면 경합범은 분노조절능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프로그램이 단독범에게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독범들이 경합범에 비해 더 신경증적인 특성을 보이고 충동적이며 자극추구적이며 사회성이 저하되었다는 보고(Bijleveld, & Hendriks, 2003)와 사전상황에서는 일치하나 이들의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은 이들의 문제가 보다 만성적이라는 설명과는 불일치하다. 가능한 설명으로는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단독범들은 집단에 적응하며 치료자와의 관계가 더 우선될 수 있는 반면, 경합범들은 비슷한 시기에 수강명령을 받으면서 공범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들의 하위문화에서는 분노를 조절하기보다 표출하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추가적인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치료효과와 상호작용을 보였다.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은 피해자와 알고 있던 청소년들에 비해 인지적 왜곡이 감소폭이 컸고,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존감도 상승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우울, 불안, 분노 조절의 변화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전반적인 지수에서 모두 피해자와 모르고 있던 관계의 가해자들에게 본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면으로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인지적 왜곡 감소나 공감능력 향상, 자존감, 사회적 지지, 우울, 불안, 분노통제의 영역에는 본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도 동시에 시사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초점이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모르는 대상에 대한 범죄자에게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위에 언급되었던 대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프로그램 중에도 종종 소식을 전해듣거나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으면서 보다 방어적인 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본인에게 적용하기보다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본래 아는 사람인데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적응 수준이 보다 만성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추후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 밝혀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치료자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매뉴얼에 근거해서 치료를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서 개인 변인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더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은 다른 치

료자들에게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성폭력을 범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북미와 영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산업'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져 왔으나(Ward 등, 2006), 국내에서는 충분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외국에서 연구되었던 여러 가지 변인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것은 향후 그들의 다른 많은 연구 역시 한국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는 치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료가 보다 효과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였고, 향후 발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향후의 치료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15주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필수요소들에 필요한 시간 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이다. 보다 긴 시간동안 충분한 개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실생활 지수 즉, 재범과 같은 요인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검증 단계에 있으나 현재의 논문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셋째로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가 있겠다. 임상가가 판단하는 반구조화된 검사나 치료자의 평가 등의 수치가 포함되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성범죄 및 범죄자 면담에 특화된 검사(예, PCL-R, J-SOAP 등)를 포함하여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추가하고 행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긴 기간 동안의 개입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며, 개방형 치료와 폐쇄형 치료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존 연구들을 참고할 때 보다 긴 기간의 개입과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둘째로는 앞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간을 두고 재범 등 실생활의 증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청소년들로서 일반범죄와 성범죄 모두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특화된 개입은 보다 만성화되고 일탈된 성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 등의 보다 죄질이 무거운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인범에게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재의 프로그램은 성범죄가 아닌 일반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및 실험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주 요소로 한다면, 국내 및 아시아권의 성폭력에 대한 특성은 연구된 바가 매우 적다. 따라서 적절한 기술과 설명이 있은 이후에 예측과 통제를 시도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북미에서 개발된 이론 및 치료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아시아권 및 한국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파악을 위한 기초연구, 실험연구, 위험성 평가 연구 및 문화비교 연구들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섯째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감능력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할극 및 편지쓰기, 자존감과 관련된 인지부조화 해결하기 등의 본 치료프로그램에서 시도된 개입법 이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부 예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치료법 및 치료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치료대상자의 특징, 범행의 특징, 진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가 요구된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 프로그램, 피해자와의 화해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회복적 프로그램, 거주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의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의 분량과 개입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치료의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초기의 탐색단계와 중기의 개방단계, 후기의 종결단계에서 대상자들의 반응 및 사고의 흐름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에 따른 개입의 기법이 달라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성폭력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0**(특집호). 117-146

김옥수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대한간호학회지 27**. 871-879.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희, 이장호 (1986). 사회적지지 척도 제작을 위한 예비적 연구. **행동과학연구, 8**, 143-153

대검찰청 (2005). **범죄분석**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이영준, 오태성 (2004).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공감. **한국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윤소연 (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7-116

이영준, 송원영, 엄소용 (2005).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인간존중프로그램 진행지침서.** 서울: 청소년위원회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

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전영실 (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찬석 (1997).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은성 (2007). 탐색적 요인분석 사용의 적절성 검토. **마케팅연구**. 22(3). 179-208.

한국여성민우회 (2003).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가정과 성 상담소

Aos, S., Phipps, P., Brnoski, R., Lieb, R. (2001). *The Comparative Cost and Benifits of Programs to Reduce Crime.* ver.4.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wad, G., Saunders, E., & Levene, J. (1984). "A clinical study of male adolescent sex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28*(2).

Bera, W. H. (1985).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a typology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nd their family syst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Bijleveld, C., Hendriks, J. (2003). Juvenile sex offenders: differences between group and solo offenders. *Psychology, Crime, & Law, 9(3)*, 341-360.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Calder, M. C. (2001). *Juveniles and children who sexually abuse: Frameworks for assessment*(3rd ed.). Dorset, England: Russel House

Campbell, J. D., & Lavallee, L. F. (1993). Who Am I?: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3-20). New York: Plenum Press.

Check, J., & Malamuth, N. (1983). Sex role stereotyping and reactions to depictions of stranger versus acquaintance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44-356.

Cortoni, F., & Marshall, W.(2001). Sex as a coping strategy and its relationship to juvenile sexual history and intimacy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 27-43.

Cortoni, F., Heil, P., & Marshall, W. L. (1996). Sex as a coping mechanism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ing. *Paper presented at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Chicago.

Davis, M.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Fernandez, Y., Marshall, W. (2003). Victim Empathy, Social Self-Esteem and Psychopathy in Rapist.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1).* 11-26.

Fernandez, Y. M., Marshall, W. L, Lightbody, S., O'sullivan, C. (1999). The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Description and

Examination of Its Reliabiliy and Validity.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 17-31.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Hamilton, M. & Yee, J. (1990) Rape knowledge and propensity to rap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 111-112.

Hudson, S. M., Marshall, W. L., Wales, D., McDonald, E., Bakker, L. W., & McLean, A. (1993). Emotional recognition skills of sex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6,* 199-211.

Kim, T. E., Goto, S. G.(2000). Peer delinquency and parental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Asian American adolescent delinquency. *Deviant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1, 331-347.

Lowden, K., Hetz, N., Harrison, L., Patrick, D., English, K., Pasini-Hill, D. (2003). *Evaluation of Colorado's Prison Therapeutic Community for sex Offenders*. Denver: Department of Justice.

Malamuth, N. (1981). *Rape Attitudes and Sexual Arousal as Predictors of Non-Deviants' Aggression Against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Marques, J. K., Day, D. M., Nelson, C., Mine, M. H. (1989). The sex offender treatment and evaluation project: California's relapse prevention program. In D.R. Laws(Ed.), *Relapse Prevention with sex Offenders* (pp. 247-267). New York: Guilford Press.

Marshall, W. L. (1971). A combined treatment method for certain sexual devi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 292-294.

Marshall, W. L., Anderson, D., Fernandez, Y.M. (1999).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New York: Wiley.

Marshall, W. L., Fernandez, Y. M., Marshall, L. E., Serran, G. A. (2006). *Sexual offender Treatment*. Chichester: Wiley.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2),* 99-113.

Marshall, W. L., Laws D. R (2003). A Brief History of Behavioral and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es to Sexual Offender Treatment: Part 2. The Modern Era.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2),* 93-120.

McNeil, G., Stewart, J. C., Kaufman, A.V. (2000). Social support as a potential moderator of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7(5),* 361-379.

Murphy, W. D. (1990). Assessment and modification of cognitive distortions in sex offenders. In W. Marshall, D.R. Laws, .E. Barbaree(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pp.331-342), New York: Plenum Press.

Reasoner, R. W. (1992). What's behind self-esteem programs: Truth or trichery? *The School Executive.* April.

Rich, P. (2003). *Juvenile Sexual Offenders*. New Jersey: Wiley.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ssel, D., Peplau, L. A.,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Scully, D. (1988). Convicted rapists' perceptions of self and victim: Role taking and emotions. *Gender and Society, 2,* 200-213.

Spielberger, C. D, Krasner, S. S,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Ward, T., Polascheck, D., Beech, A. (2006). *Theories of Sexual Offending.* Chichester: Wiley.

Wolf, S. (1984). *A Multifactor Model of Deviant Sexuality*, paper presented at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ctimology, Lisbon.

원고접수일 : 2008. 02. 26.
게재결정일 : 2008. 04. 04.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2, 547-569

Development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Juvenile Sexual Offenders

Wonyoung Song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Kyung Ja Oh
Dept.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Yee Jin Shin
Dept.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 program for juvenile sex offender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o this aim, a 15-session group CBT program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juvenile sex offenders on probation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received this program. Seventy-three adolescents completed this treatment program as well as pre- and post-treatment scales. The domains of the scales included cognitive distortion, victim empathy,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motional stability. The results of the program were as foll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were found in the subjects' pre- and post- treatment scores pertaining to cognitive distor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motional st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make positive changes to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sex offenders using this treatment program. However, the changes in victim empathy and self-esteem did not reach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juvenile sexual offender, probati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